

있어 注意를 끌었다. 上甲石 上面에는 낮은 角形의 一段받침과 四分圓의 물딩으로 塔身을 받고 있으며 四隅에는 合角部가 뚜렷하다.

塔身部는 現存 屋身은 一、二層뿐이나 兩隅柱가 整然하고 屋蓋石은 三層까지 完存하며 屋蓋받침이 共히 四段씩인데 三層屋蓋石은 받침部가 破損되어 遺憾이다. 各 屋蓋石 四隅에 風磬孔이 없어 비록 壯嚴은 없다 하더라도 落水面이 平薄하고 轉角에 反轉이 있어서 輕快한 편이라 하겠다.

相輪部는 露盤과 仰花가 一石인 바 上下面 中央에 擦柱圓孔이 貫通되었으며 仰花石의 各 面에는 彫刻이 있었으나 磨滅이甚하여 識別할 수 없다.

石燈材는 下臺一石으로서 現在 石塔頂上에 놓여 있으며 八角의 各隅에는 立狀귀꽃이 陽刻되었고 各 側面에 單葉一瓣씩의 伏蓮이 彫刻되어 都合 八瓣의 蓮華紋인데 各瓣內는 花紋 彫飾이 보인다. 上面에는 中臺를 받는 八角의 三段괴임이 마련 되었으며 그 中央에는 圓孔이 있어 中臺(竿柱)를 꿰도록 되어 있다.

石塔의 部材가 完存치 못하여 遺憾스러우나 基壇部의 構造와 彫飾 및 屋蓋石의 造成手法과 塔身의 比率等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葉以前으로 볼 수 있는 優作에 屬하는 塔婆라 하겠다. 石燈材도 귀꽃이나 蓮瓣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石塔과 同代의 것으로 보아 같은 寺域에 세워졌었던 石燈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現總高三〇〇 下地臺長一三九 上地臺長一七四 下基幅一四五 下基三七七 下甲長一五二 下厚甲一・二五 上基幅一〇四・五 上甲長一・二〇 隅柱幅一・五 上基高七〇 上甲厚八・五 撐柱幅一・五 初層塔身高五〇 二層塔身高一三 初層塔身幅五〇 二層塔身隅柱幅一〇 二層塔身隅柱幅九 初層屋蓋石長七九 初層屋蓋石厚二五 二層屋蓋塔身七二 二層屋蓋石厚二三

## 在銘佛器 六點

### 文 明 大

쇠붙이 탐지기에 의하여 金屬美術品의 出土가 부적는 것은 잘 알려진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사실이다. 그 가운데는 佛像、鍾、香奩 등의 珍작품들도 많이 있었거니와 특히 在銘作品들도 꽤 있어서 美術史 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된다. 마구 파내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차피 出土된 것이라면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急先務이다. 여기에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이 六點은 忠北 堤川地方에서 일괄적으로 出土된 多量의 佛器들 가운데의 一部이다. 확실한 出土地는 알 수 없지만 銘文에 보이다시피 寺院의 各附屬建物에 使用하고 있었던 만큼 어떤 廢寺址에서 出土된 것만은 확실하다.

(1) 靑銅香奩(高一·一cm 口緣部徑一四cm 字徑一·五cm) 胴體와 臺가 分離된 一般形小香奩이다. 施文은 全然 없으며 겹거나 약간 자주빛의 녹색과 함께 덮여 있다. 口緣部裏面에 「三重□」願佛前貳十五兩」이란 銘文이 있다.

(2) 靑銅香奩(高一五·五cm 口緣部徑一五cm 臺高七cm 字徑一cm) 山화가 심해서 臺底部가 半이나 멀어졌고 口緣部에 面한 胴體도 길게 멀어졌다. 역시 施文은 없고 口緣部裏面에 點字銘이 있다. 「九祖前」

(3) 靑銅香奩(高一五·五cm 口徑一五cm 臺高七cm 字徑一cm) 臺底部가 缺失되었고 곳곳에 조금씩 산화되었지만 매끈하고 고르다. 胴體에 二條의 陰刻線이 있고 口緣部裏面에 「大藏堂」이란 點字銘文이 있다.

(4) 靑銅香奩(身高一〇cm 字徑一·五cm) 臺가 缺失되었고 口緣部一部가 멀어졌는가 하면 胴體가 찌그러지는 등 파손이 심하다. 역시 口緣部裏面에 銘이 있는데 몇字는 脱落되었다. 「禪師師順愿化前」

(5) 靑銅小鉢(高一三·二cm 口徑一三cm 臺徑八cm 臺高一·八cm 字徑一·二cm) 胴體가 길쭉하여 늘씬하게 보인다. 施字상대는 고르지 못하며 臺一部가 缺失되었다. 胴體上部에 點字銘이 있다. 「奉三重愿前排重十三兩」

(6) 靑銅奩(高八·七cm 臺徑六·一cm 臺高一·三cm 字徑一·五cm) 二연한 청녹색이 곱게 덮여 있으나 산화 때문에 두 곳이나 구멍이 났다. 胴體上部에 「羅漢前」이란 銘文이 있다. (以上 東國大博物館 新收品)